

페퍼스, 고예림 영입·하혜진 재계약... '공수 밸런스' 보강

고예림, 안정적 리시브·수비력 강점... "감독님 믿고 고민없이 선택" 하혜진, 속공·이동공격 능력 출중... 수석코치·트레이너 등 재정비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자유계약(FA) 시장 에서 아웃사이드 히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고예림 (30)을 영입하고, 미들 블로커 하혜진(28)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2024-2025시즌 창단 첫 두 자릿수 승 기록을 세운 페퍼스는 이번 FA 계약으로 수비를 보강하고 팀 내 중심 자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고예림은 177cm의 신장을 갖춘 아웃사이드 히터로, 2013-2014 V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순위로 한국도로공사에 입단하며 프로 무대에 발을 들였다. 2016-2017 시즌에는 IBK 기업은행, 2019-2020시즌부터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양쪽 무릎을 수술하면서 재활을 겪기도 했다.

고예림은 안정적 리시브와 수비력이 특징으로, 이번 영입으로 수비 보강에 집중하고 있는 페퍼스에 안정감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소연 페퍼스 감독은 "고예림 선수는 공수의 균형을 갖춘 선수로서, 화려한 득점보다는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팀의 수비에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트 내 유기적인 움직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설명했다.

영입 이후 고예림은 "현대건설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우승에 도전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라며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함께하자고 해주신 페퍼 저축

은행에 감사드린다. 감독님을 믿고 고민 없이 선택했고, 새로운 팀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1-2022 시즌부터 페퍼스와 함께했던 하혜진은 181cm의 신장을 갖춘 미들 블로커다.

하혜진은 2014-2015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한국도로공사 유니폼을 입고 페퍼스에서 주전으로 도약했다. 빠른 반응 속도와 탄탄한 블로킹 기술을 가진 하혜진은 코트에서 속공과 이동공격을 고루 소화하고 있다.

페퍼스는 앞서 2024-2025시즌 V-리그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호주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 스테파니 와일러를 전체 1순위 선수로 선택했다. 195cm 장신으로 강한 스파이크와 블로킹 능력을 보유한 스테파니는 페퍼스의 높이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페퍼스는 와일러와 트리아아웃을 통해 영입한 선수로 오는 5월 9일 시즌 전력 구성을 완성시킬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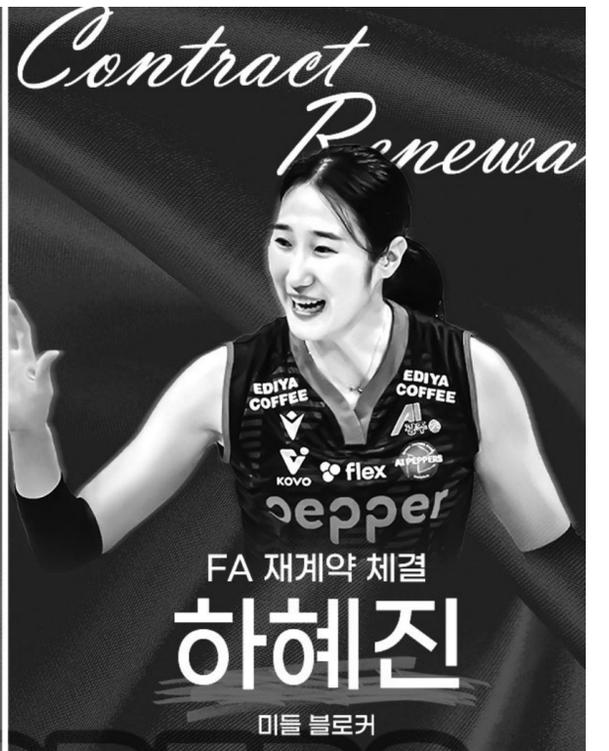
페퍼스는 선수 영입 외에도 코칭스태프 재정비에 나선다.

이달 말 페퍼스 수석 코치와 수석 트레이너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교체될 예정이고 다음 시즌을 대비한 전력을 구성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이 지난 시즌까지 현대건설에서 뛰었던 아웃사이드 히터 고예림을 23일 FA로 영입했다. 같은 날 유일한 내부 FA인 미들블로커 하혜진의 잔류도 결정됐다.



같은 날 유일한 내부 FA인 미들블로커 하혜진의 잔류도 결정됐다. (AI페퍼스 제공)

'생활체육동호인 축제' 목포서 펼쳐진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27일까지...일본 선수단, 8개 종목·151명 참석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4일부터 27일까지 목포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단이 참가해 41개 종목에 걸쳐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대회는 목포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전남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분산돼 열린다.

특히 한·일 간 생활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일본 생활체육 선수단 151명도 한국을 찾는다. 이들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배구 등 8개 종목에 참여한다.

개최지 전남의 선수단은 역대 최대 규모인 1655명(선수 1329명, 임원 326명)으로, 전 종목에 참여한다. 광주는 34개 종목 792명이 출전한다.

전남의 최고령 선수는 소프트테니스의 이계수(90), 최연소는 볼러의 주은우(8)다. 광주는 게이트볼의 양재갑(89), 방상의 신유주(6)가 각각 최고령과 최연소 선수로 기록됐다.

보성FC 정진철 감독과 아들 정시운 군은 축구 유소년부에서 부자 동반 출전한다. 순천마스터즈 소속 이의재와 딸 윤시아양도 나란히 우수 태극권에 출전해 눈길을 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현대캐피탈, 대만 윈스트릭 국제배구대회 참가

2024-2025시즌 남자 프로배구 트레블(컵대회 우승·정규리그 1위·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달성한 현대캐피탈이 비시즌을 이용해 국제대회에 참가한다.

현대캐피탈 선수단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제4회 윈스트릭 국제배구 초청대회에 국군체육부대(상무)와 함께 출전한다.

이 대회는 대만리그(TVL) 윈스트릭이 여는 친선 대회로, 윈스트릭은 2022-2023시즌 TVL에 뛰어들어 2024-2025시즌까지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통합 3연패를 달성한 신흥 감팀이다.

이 대회에선 총 8개 팀이 4개 팀씩 A조와 B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러 조 1, 2위가 준결승부터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우승 상금은 1만8000달러(약 2570만원)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조던, 4조 벌어 역대 스포츠 선수 수입 1위

2위 우즈·3위 호날두

역대 스포츠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선수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미국·사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 매체인 스포티코가 23일 발표한 역대 스포츠 선수 수입 순위 따르면 조던은 현역 시절 및 은퇴 이후에 30억 달러(약 4조 2900억원)를 벌며 1위에 올랐다.

2위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로 19억 10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조7000억원 정도를 기록했다.

이 순위는 2024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했으며 선수들의 활동 시기가 달랐던 점을 고려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액수를 따로 집계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조던의 수입은 41억5000만 달러로 늘어나고, 우즈 역시 27억9000만 달러가 된다.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에서 활약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다.

물가 상승률 반영 이전 수입이 18억3000만 달러, 반영 후에는 22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프로농구(NBA)의 '킹' 르브론 제임스(미국)가 물가 상승률 반영 후 18억8000만 달러로 4위, '축구 신'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18억



5000만 달러로 5위에 올랐다.

2016년에 8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널드 파머(미국)와 85세인 잭 니클라우스(미국)가 나란히 6위와 7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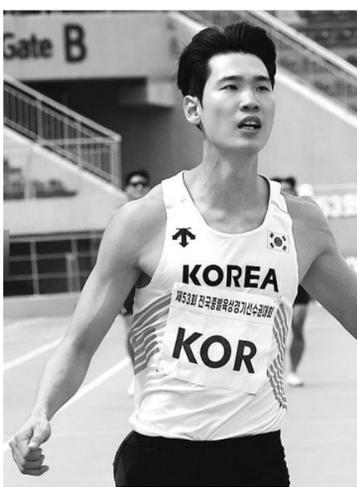
파머가 인플레이션 조정 후 수입액 18억2000만 달러, 니클라우스는 17억5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8위부터 10위는 데이비드 베컴(축구·영국), 로저 페더러(테니스·스위스), 플로이드 메이웨더(권투·미국) 순이다.

상위 50위 내 여자 선수는 세리나 윌리엄스(테니스·미국)가 유일하게 40위에 자리했다.

윌리엄스는 우리 돈으로 9420억원 정도인 6억 6000만 달러를 벌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선수들, 구미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최종선발전 선전



200m 남자부 광주시청 고승환 2위·모일환 3위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최종선발전'에서 광주·전남 선수들이 메달을 수확했다.

지난 22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200m 남자부 경기에서 고승환(광주시청·사진)이 21초28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2위를 기록했다.

모일환(광주시청)은 21초44로 3위에 올랐다. 1위는 서천군청의 서민준(21초17)이 차지했다.

100m 여자부 결승에서는 이은빈(해남군청)이 12초05로 동메달을 얻어냈다. 이 경기에서 '쌍둥이 자매' 가평군청의 김다은과 김소은이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며 눈길을 끌었다.

3000m 여자부 장애물 결승에서는 남보하나(진도군청)가 10분27초58로 3위를 기록했다.

이 경기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문경시청 조하림은 9분59초05로 '마의 10분' 구간을 넘어

서며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해머던지기(4.0kg) 여자부에서 박서진(목포시청)은 58.64m로 은메달을, 포환던지기 여자부에서 정소은(목포시청)은 14.95m로 동메달을 더했다.

한편 높이뛰기 남자부 종목에서 '스마일 점퍼' 우상혁(용인시청)은 2.30m를 성공시키며 1위에 올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자연은 그렇다 환경은 그렇지 않다: 추순정 개인전

일시: 2025-3-28(금)~2025-4-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062-613-8357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일시 / 장소:
-04월 19일(토) 13:30, 15:00 / ACC 상상마당
-06월 07일(토) 13:30, 15:00 / 푸른길공원
-06월 14일(토) 13:30, 15:00 / 양산호수공원
문의: 062-526-0363
*우천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